대한조선 해남조선소 1도크 가동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 향한 첫발

유럽 등서 19척 16억달러규모 수주
내년말 세계최대규모 2·3도크 완공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계열 대한조선은 21일 해남조선소(해남군 화원면 화원반도) 제 1도크에서 용골거치식(킬레잉·Keel Laying)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도크 준공으로 대한조선은 오는 2008년 말 준공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2·3도크와 함께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를 향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날 용골거치식에는 대한조선 관계자, 인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골을 거치한 17만500t급 벌크선 HN-1001호는 9개월여의 공정을 거쳐 내년 5월 노르웨이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14만8천㎡(4만5천여평)의 부지에 들어선 1도크는 345m(가로)×72m(세로)×10m(높이) 규모로 지난 2005년 하반기 조선소 건립공사에 들어간 지 20개월 만에 완공됐으며, 600t급 골리앗 크레인 1기와 40t급 집크레인 2기를 보유하고 있다.

박재영 대한조선 부회장은 “1도크 완공에 앞서 이미 유럽 등지로부터 19척, 16억불 규모를 수주, 대한조선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면서 “오는 2008년 말 2·3도크가 완공될 경우 연간 220만CGT(Compensated Gross Tonnage·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신조사업능력을 갖춰 국내 메이저 조선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3도크는 세계 최대 규모인 400m×110m×14m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말뫼의 눈물’과 동급인 1천500t급 골리앗크레인이 설치돼 대형유조선(VLCC급)이나 수에즈급 이상의 가스운반선 등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 시작돼 2012년 마무리될 부대시설 사업에서는 50만평에 달하는 부품·블럭공장 완성, 해양플랜트 전진기지 건설 등이 이뤄진다.

조선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한조선은 오는 2012년까지 벌크선·중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 연간 4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또 2013년부터 대형 컨테이너·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주프로젝트를 전환한데 이어 호화 유람선·고속여객선 등으로 지평을 넓혀 2015년부터 연간 매출 10조원 궤도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박 부회장은 “대한조선은 해남에 515만㎡(150만평)의 조선소 사업 외에 230만㎡(70만평) 규모의 배후도시를 조성,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을 합쳐 10만여명의 경제활동인구를 창출하게 된다”면서 “대주그룹은 울산·거제에 이어 해남군을 신 조선산업도시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남=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벌크선(bulk carrier·살적화물선)=철광석·선탄·소맥 등 살적(撒積)화물을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선박 속을 칸막이하지 않고 배 자체를 하나의 용기처럼 만든 선박을 말한다.

직장인 스트레스 1순위 뭘까

20대 상사 관계
30대 자기 계발
40대 부하 관계

직장인들은 주로 조직 내 상하관계, 자기 계발과 업무 성과에 대한 강박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몬과 공동으로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701명을 선별해 ‘연령대별 스트레스 요인과 해소법’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 스트레스 요인 1위로(복수응답) ‘상사/부하와의 관계’(39.1%)가 꼽혔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자기 계발’(38.2%)과 ‘업무 성과’(34.0%)가 3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직장인 스트레스 요인의 ‘빅3’를 이뤘다.

연령대별로 20대 직장인에게는 ‘상사/부하와의 관계’(45.9%)가, 30대는 ‘자기 계발’(41.2%)이, 40대는 ‘상사/부하와의 관계’(47.3%)가 각각 스트레스 요인 1순위로 꼽혀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직장인들은 이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복수 응답) 주로 음주(37.3%)에 기대고 있지만, 운동(28.2%)과 수면(25.1%), 문화생활(24.9%), 취미·특기활동(20.8%) 등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애플 새 ‘아이맥’ 출시 21일 서울 종로타워에서 도우미들이 애플 코리아가 새로 출시한 아이맥(iMac)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20인치 모델이 129만원부터, 24인치 모델이 189만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지역 상장사 장사 잘했다

1,000원 팔아 68원 벌어…작년보다 10원 더 남겨

광주·전남지역 상장회사들은 올 상반기동안 1천원어치를 팔아 68원을 남기는 등 비교적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1일 발표한 지역내 상장법인중 12월 결산법인 22개사의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6%로 1천원어치를 팔아 약 68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원어치를 더 남긴 것으로 전국 평균영업이익(67원)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편이다.

지역 상장사들의 총 매출액은 2조8천930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357억원(17.73%), 영업이익은 1천9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6억원(36.78%) 늘었다.

반면 순이익은 729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292억원(-63.93%)이나 줄었으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지분법평가 손실을 반영한 회사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 증가율은 18.92%에 달한다.

지분법평가 손실 반영으로 인해 금호산업은 전년대비 순이익이 1천169억원이나 줄었고 금호타이어도 201억원이 감소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은 전국 제조업 평균 증가율보다 각각 8.83%포인트와 30.13%포인트 높은 수치다.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금호산업·조선내화·화천기공 등 16개사이며 폴리플러스·금호타이어·대유디엠씨 등 6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자본총계는 3조2천866억원으로 전년대비 780억원(2.43%), 부채총계는 5조5천256억원으로 3천342억원(6.44%), 부채비율은 168.12%로 6.32%포인트 각각 증가하는 등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악화됐다.

특히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82.75%)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 상장법인 상반기 영업실적

(단위:백만원)

회사명	2007년 상반기	
	매출액	순이익
광주신세계	90,207	13,106
금호산업	810,262	25,824
보해양조	63,481	4,725
셀런	75,563	4,967
조선내화	165,194	8,306
화천기공	80,977	7,732
부국철강	96,206	3,633
성원파이프	69,738	6,469

순천·광양 4분기 제조업경기 “맑음”

“대내외 여건 호전 기대”

순천과 광양 등 동부지역 제조업체들은 올 4·4 분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순천과 광양, 구례, 보성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4·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8로 나타나 업체들이 경기를 밝게 보고 있음을 반영했다.

BSI가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전을, 그렇지 않으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SI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업체들은 대외여건(117)과 대내여건(123)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130)와 수출(121)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량(130)과 생산설비 가동률(126)도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 구입가격(64)의 상승이 여전히 기업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0.0%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세제혜택 제공”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21.0%는 “법이 정착될 때까지 위법 적발보다는 사전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1.6%는 “차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제공 및 임금체계 개편 비용에 대한 지원과 자문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영국계 HSBC와 협상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영국계 은행인 HSBC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매각과 관련 현재 HSBC와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 카드 사용 ‘펑펑’

2만달러 이상 사용자 1년새 2배 늘어

외국에서 이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해외 고액 사용액은 2배로 증가했다.

또 고액 해외 신용카드 이용자 중 사용액 상위 19%의 이용액이 전체 고액 사용액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에서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100만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쓴 개인도 39명에 달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연간 2만달러 이상 사용한 법인과 개인은 3만311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고액 사용 건수와 금액은 525만4천건과 15억6천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는 41%, 금액은 54% 각각 증가해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와 사용금액 증가세가 전체 해외신용카드보다 훨씬 빨랐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와 사용금액은 705만명에 48억4천200만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9%와 33% 정도 늘어났다. /연합뉴스